



“할시위 당길 맛 나겠네”

29일 제주 서귀포 성산고등학교에서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양궁 여자부 단체전이 열리고 있다. 성산 일출봉 아래 펼쳐진 표적지를 향해 선수들이 걸어가 있다.

/제주=나명주기자 mja@kwangju.co.kr

여수정보과학고 유도부 전원 메달

김지정, 70kg 銀·무제한급 銅 등 4명에서 5개 합작



출전 선수 전원 메달을 획득한 여수정보과학고 유도부 채윤지, 김지정, 강유정, 김혜미(왼쪽부터). <여수정보과학고 제공>

“훈련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수정보과학고(교장 조순이) 유도부가 제주 전국체전에서 4명의 선수를 내보내 5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출전 선수 전원 메달이다. 주인공은 70kg급 은메달과 무제한급 동메달을 딴 김지정(2년)과 동메달을 획득한 48kg급 강유정(3년), 78kg급 김혜미(3년), 78kg이상급 채윤지(2년)다. 업어치기가 주특기인 김지정은 29일 제주유도 회관에서 열린 95회 제주 전국체전 유도 여고부 결승에서 이예원(경기·경민정보산업고)의 누르기에 걸려 패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지정은 준

결승까지 한판승으로 깔끔하게 경기를 풀어갔지만 마지막 결승에서 아쉽게 누르기에 걸려들면서 한판으로 패했다. 김지정은 무제한급에도 출전해 동메달을 추가했다. 몸무게 65kg인 그가 해비급에 출전한 것은 뜻심이 좋고, 업어치기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김지정은 올해 전국청풍기유도대회와 전국 추계중고유도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 2관왕을 기록했다. 채윤지와 김혜미, 강유정은 아쉽게 준결승에서 모두 패하면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메달제조기 김영휘 여수정보과학고 유도부 감독은 “메달 색깔은 훈련량과 비례한다”며 “모든 훈련을 전국체전에 맞춰 진행한다. 체력·컨디션을 100%로 끌어올려 출전하다보니 자신감이 충만해 전원 메달로 이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여수정보과학고 유도부는 새벽·오후·저녁으로 나눠 하루 세차례 훈련한다. 새벽훈련은 산악 달리기와 주다. 호흡을 트기(폐활량 키우기) 위해서다. 오후 3시부터는 2시간동안 기술훈련을 한다. 상대는 동료들이다. 업어치고, 매치고, 되치고... 저녁엔 순간 힘을 모을 수 있게 근력운동을 한다. 김 감독은 “학교가 남녁 끝자락에 위치하다 보니 연습 상대가 없다”며 “수도권은 넘쳐나는 선수인데 전남은 열악하다”고 아쉬워했다. 여수정보과학고 유도부는 부전공으로 레슬링을 한다. 유도부 전체 9명 중 전공인 유도에서 전남 대표로 선발된 4명은 유도로 출전하고, 나머지 5명은 레슬링으로 전향해 출전했다. 부전공이지만 레슬링에서도 심심치 않게 메달을 수확하고 있다. 김 감독은 “대표로 발탁되지 못하면 1년에 한 번 나갈 수 있는 전국체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다”며 “유도 대표로 발탁되지 못한 선수들에게 체전 출전 기회를 주기 위해 부전공으로 전남에서는 불모지로 꼽히는 레슬링을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골든데이’

유도 김성연·사이클 최승우 등 금 5 획득

29일은 광주의 골든데이였다. 인천아시아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유도의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을 비롯해 대회 신기록을 갈아치운 수중핀수영의 장예솔과 김태균(이상 광주시체육회), 사이클 최승우(국민체육진흥공단), 댄스스포츠의 김진웅·강세나(광주댄스스포츠경기연맹)가 금메달을 일궜다. 인천아시아게임 스타 김성연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김성연은 제주유도회관에서 열린 유도 여자 일반부 70kg급에서 부상투혼을 발휘하며 정상에 올라섰다. 김성연은 아시아게임에서 발목을 다쳐 수술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민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전국체전 출전을 강행했다. 김성연의 금메달은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박은지(충북도청)와 장은영(경남도청)을 잇따라 제압하면서 예감했다. 김성연은 결승에서 이나라(성동구청)를 어깨로메치기(유효)로 꺾었다. 장예솔은 수중핀수영 여자일반부 표면 100m에서 33초33으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종전기록보다 무려 6초52를 앞당겼다. 팀 동료인 김태균은 남자일반부 무호흡잠영 50m에서 14초42로 가장 먼저 골인했다. /제주=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진웅과 강세나는 댄스스포츠 일반부 스탠다드5종목에서 정상의 춤사위를 선보였다. 전남의 메달밭은 전통의 효자종목 사이클이였다. 사이클에서만 이날 4개를 추가하는 등 총 12개(금 2, 은 6, 동 4개)의 메달을 수확하면서 트랙경기 전 종별 메달 획득의 진기록을 세웠다. 김지호(금성고)는 29일 나주 전남사이클경기장에서 열린 사이클 스크래치 경기에서 금빛을 쬐었다. 민금주(전남미용고)와 한탁희(강진군청)는 여고부 24km포인트트레이스 남자일반부 스크래치에서 은메달을, 임사랑은 여자일반부 스프린트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태권도에서는 3개의 금빛 발차기가 나왔다. 쌍둥이 동생인 고호재(전남체고)가 남자고등부 54kg급에서 금메달을 땀. 형인 고혁재(전남체고)는 1회전에서 아쉽게 탈락했다. 심재영과 김민정(이상 한국체대)은 여대부 46kg급과 49kg급에서 각각 정상에 올랐다. 한편, 제주 전국체전 둘째날인 29일 오후 6시 현재 광주는 금메달 6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3개를 확보했다. 전남은 금메달 4개를 추가해 금메달 12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28개를 수확했다. /제주=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初心’ ‘野心’

김광현 “죽을 힘 다해 던지겠다” ML 도전

“매일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부담도 있었지만, 속명으로 알고 매일 죽을 힘을 다해 던지겠습니다.”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에이스 김광현(26)이 어린 시절부터 이어 온 꿈인 메이저리그 진출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광현은 29일 서울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걱정도 되지만 많은 이들의 응원에 힘을 얻어 첫 걸음을 시작하려 한다. 가능성을 인정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실망시키지 않는 선수가 되겠다”고 출사표를 내밀었다. 김광현은 2008~2010년 두 차례 다승왕을 차지하고 평균자책점과 탈삼진 1위를 한 차례씩 차지하는 등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투수로 활약했다. 이후 몇 년 간 어깨 부상 탓에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올 시즌 타고투저의 광풍 속에서도 28경기에 출장해 13승 9패와 평균자책

점 3.42를 기록하며 부활했다. 김광현은 “어린 시절 박찬호 선배를 보며 꿈을 키웠고, 박찬호기 야구대회처럼 나도 메이저리거가 돼 ‘김광현기 대회’를 열어보고 싶다는 꿈을 꾸기도 했다”며 “윈슨 투수이다 보니 랜디 존슨을 보며 큰 무대를 꿈꾸기도 했다”고 오랜 꿈에 다가갈 기회를 잡은 데 박찬호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아울러 “메이저리그 타자들은 모두 붙어보고 싶다. 과연 유인구에 속을지, 직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새로운 무대를 향한 호기심도 드러냈다. 김광현은 “나를 진정으로 원하는 팀이다. 원하는 팀이라면 선발이든 중간이든 보직에 상관없이 죽을 힘을 다해 던지겠다”고 했다. SK는 내달 1일 한국야구위원회(KBO)를 통해 김광현의 포스팅을 공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슈틸리케 축구 감독 “내년 아시안컵 우승 목표”

울리 슈틸리케(60·독일)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2015 아시안컵에서 우승해 한국을 아시아 맹주로 되돌려 놓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나섰다. 슈틸리케 감독은 29일(한국시간) 카타르 일간지 ‘더 페니슐라’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아시아의 맹주’라는 전통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며 “현재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아시아 4위에 머물러 있지만 아시안컵에서 반드시 우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카타르는 U-19세 대표팀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고 최근 성인 대표팀도 좋은 성적으로 거두고 있어서 아시안컵에서 좋은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조만간 요르단 및 이란과 평가전을 펼치는 데 이번 경기가 우리가(아시안컵에서) 해야 할 경기력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